

새해 일터불심은 신행의 바탕을 어디에 둘까? 모집은 훌쩍 커 버렸고, 체형에 맞는 옷도 같이입어야 한다. 그렇다면 갑신년을 맞은 일터불자회는 1년간 몸만들기에 어떤 방안을 강구할까. 지난해 12월 29일, 직장·직능불자연합회 실무국장 5명에게 그 비책을 들어보았다. 좌담은 △신년사업 구상 △일터불자의 역할 △특성화된 신행 프로그램 개발 △회원 노령화 현상 극복 △연합회간 연대사업 및 내부반성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눠, 직장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일터불심이 새해 사업 구상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5개 직장·직능연합회 실무국장이 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충훈, 김진홍, 박창식, 안홍부, 김대원) 사진=박재원 기자

▼2004년 사업구조와 중점 사항은?
김대원= 조직 정비와 확대에 있다. 그간 활동이 부진했던 지역회를 활성화하고, 미결성된 지역에 산악회 출범을 독려했다. 불교발전회를 위한 사업도 보인다. 불자들이 모임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포용하는 단계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안홍부= 2004년은 공불연 집행부 2기 2년차다. 마지막 해다. 중앙부처 및 시도단위 불자회 조직 마무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직 확대차원의 사업은 올 해로 정리할 생각이다. 추진방향은 그간 미흡했던 정부 산하 부처기관 불자회 정립을 지원한다. 중앙부처별로 불자모임 결성을 유도하고, 불자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였다. 금년에는 어떠한 방안들이 계획되고 있는가?
이충훈= 지속적인 법회 봉행이 내실화의 출발이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산업은행 불자회의 경우, 단 한 사람이 모여도 법회는 봉행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김진홍= 맞다. 첫째도 둘째도 법회 활성화다. 지도법사가 없다고 법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스님이 없어도 법회를 봉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좌담

2004년 일터불심의 각오

참석자

- 김대원(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 사무총장)
- 김진홍(대한민국의정불교회 사무국장)
- 안홍부(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 박창식(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충훈(전국금융단체불자연합회 총괄간사)

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원= 직능단체의 경우, 개인 사업장 중심의 신행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을 연합회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 불교대학 동문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이들은 불자회에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인력뱅크이기 때문이다.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김진홍= 경찰대학 불교학생회, 중앙경찰학교, 신입 경찰, 전의경 등의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수료직전에 1박2일 산사체험을 마린, ‘짧은 출가’를 경험케 하고 지역 사찰 스님과 인연을 맺도록 돕겠다.
이충훈= 우선 적극적으로 직장불자회를 홍보해야 한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알려야 한다. 신입사원의 종교도 파악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기체조’, ‘선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법회 중심 전방위 활동 “준비됐어요”

박창식= 철불협은 4월 개동되는 고속철도 준공식에 맞춰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를 범종단 차원에서 봉행할 계획이다. 개동역사에서 법회를 열어, 지역 화원과 사찰을 한데 묶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기 수련회도 짜임새 있게 진행한다. 우선 임원진 중심의 워크숍을 분기별로 개최해 철불협의 발전방향을 잡아나간다.
김진홍= 전국 101곳 경찰불자회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둔다. 2004년에는

자체 법요집 제작, 이동 가능한 불상 봉안 등의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박창식= 철불협은 조직정비에서 내실을 기하겠다. 현재 재경,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지역을 담당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돼 합동법회를 정례화 할 생각이다. 또

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대원= 내실화에 성공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산악인불자회의 경우, 영·호남 화합을 위한 산행법회를 봉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를 전국 6개 권역별로 확대하고, 산상법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이충훈= 거사불교 바람의 진원지는 금융단체불자연합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찰 운영에서도 재가불자 실행에서도 직장불자회는 하나의 중심축이 돼 왔다.

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김대원= 중장년으로 구성된 모임의 틀을 깨야 한다. 청년층을 얻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청년부와 학생부를 둘 방침이다. 불교계 유지원과 연계해 어린이에게도 산상법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회간 연대사업은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가? 또 내부 반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안홍부= 직장연합회체는 그 성격에 달리 해도 각 지역별로는 연합회를 할 수 있다. 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횡으로 만나야 한다. 인도 라망처럼 문쳐야 일터불자의 힘이 최대화 될 수 있다. 일터불교의 신행의 바탕은 종횡으로 만나 인도라망의 구성이다.
김진홍= 자체적인 직장불교 포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포교사와 지도자를 길러내자.

조직확대·내실 다지기 기조 유지 사이버 공간 포교기반 적극 활용 체계적인 교리·수행체험 기회 마련

조직 확대를 잠시 미루고, 신행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침불자 되기 운동’을 전개해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운다. 또 큰 호응을 얻은 번사자 영가전도법회를 각 관서별로 병행토록 권장한다.
이충훈=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래야만 법회도 활성화될 수 있고, 마칭립 금융기관 불자회 결성 유도가 가능하다.

최소한 분기별로 가을 성지순례를 지역 사찰과 연계해 권역별로 진행코자 한다.
안홍부= 회원들을 위한 교리강좌도 한 방법이다. 그간 일방적인 법문 전달 방식의 변화는 불교기초교리를 배우는 데 장애 요소가 됐다. 체계적인 교리강좌를 마련,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사활동의 강화도 요구된다. 회원 간 협력심 제고, 불법의 실천에 이만한 방법은 없다. 그것이 바로 포교다. 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또 다른 신행의 기회

▼그간 직장불자들은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혀왔다. ‘거사불교’의 실행바람을 일으켰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원= 길게 보는 ‘거사불교’를 제창한다. 이제는 큰 불교, 멀리 보는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불자의 역할이 이 때문에 크다.
안홍부= 앞서서 법문을 듣는 시대는 끝났다. 일터불교는 역동적인 실행을 보여왔다. 특히 그간 재가불자 실행이 기복신앙이었다는 편견을 없앴다.
박창식= 일터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에 큰 기여를 했다. 가족 중심의 실행문화를 조성했고, 치마법회를 ‘버찌바람’으로 바꾸었다.
김진홍= 경찰불교의 경우, 입주업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유대강화에 교량이 됐다. 또 경찰불자들은 불교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앙이었다.

▼직장·직무상 실행이 다른데...
이충훈= 금융 기관 연수시설을 이용, 초빙해 교리 공부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최근 각종 관광 받는 ‘웰빙(Well-Being)’ 등의 시대 흐름을 반영해 함께 즐기는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김진홍= 경찰불자는 현장에서 산다.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자투리 법회’를 봉행하겠다. 또 전·의경 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법회를 계획해 미래불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겠다.
박창식= 철도불자회의 근무여건은 제각기다. 이리다보니 모이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12명의 포교사가 중심이 된 전법팀을 구성, 사이버 포교에 나서겠다. 모든 철불협 소식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사이버 불교공동체를 만들겠다.
안홍부= 직장불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이버 포교 여건이 잘 조성됐다는 점이다. 이미 구축된 직장불교단체 홈페이지를 상호 링크해 활발한 정보교류

신세대 동참, 법회 문화에 ‘활기’ 주입 인드라망 구축으로 연합활동 배가 전문 지도자·포교사 양성 시스템 추진

‘어린이-중·고생-대학생-중장년’으로 순환되는 인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안홍부= 젊은층의 특징은 부부와 아이들과 여가생활을 한다. 불교문화답사 등과 같이 ‘소풍가는’ 가족법회를 개설해야 한다. 젊은층의 문화코드를 읽어내 융통성 있는 법회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박창식= 사실 젊은 불자들은 많다. 문제는 방법이다. 봉사를 통한 실행의 맛을 보게 해야 한다. 철도대학 불교학생회와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 철불협을 이끌

안홍부= 직장불자회를 자기 종단·사찰 소속으로 사유화하려는 스님과 종단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직장불자회 스스로 직장불교를 전달할 직장포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박창식= 맞다. 우리는 어느 종단의 신도회가 아니다. 물론 개인회들이 종단 또는 사찰의 신도일 수 있지만, 직장불자회 조직은 범종단, 범불교적인 실행단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리=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선교육

시간부, 건강부,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인심, 대본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체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명부신-참선과 인과 법, 의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제 상식), 참선할 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 할 일, 참선할 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환절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제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도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도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선택과 폐기, 화두 생각방식,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양 법도, 사빈주, 동념취, 정념취, 일체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편법문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달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지남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법,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열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꿈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진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주~28주, 중국사 28주~56주, 한국사 57주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라면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동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 기업**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교의 신품 범종차출』

가릉빈가

약1300mm
10 15
약1150mm
중25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나오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들에게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음향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2-733-6141(대) 032-772-5451(대)

● 제품명: 가릉빈가
● 제품특성: 국내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인 음원(독경, 명상가요 외) 등을 45분 동안 왕도 송출이 가능하며, 마이크 겸 프스피커 3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외의 중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출력 60-100W 리모컨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일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기능 - 46분(중소) 20주, 독경 40여분 정적, 오디오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메모리 단

중 기능(타종 및 수 조절 기능) - 일람기능 (3분 작동기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알프스 기능
● 사용방법: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지므로 본물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되었습니다.
● 소비자가: 4,500,000원(중 25관 + 종 + 스피커 3개 + 기타 = 일체포함)
● 총제작액: 성종사 ● 전자종틀제작액: (주)비엔비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지급 300만원 개설 기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 우대 www.bellkorean.com